



서산문화원 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 서산의 음식

통권 제338호

201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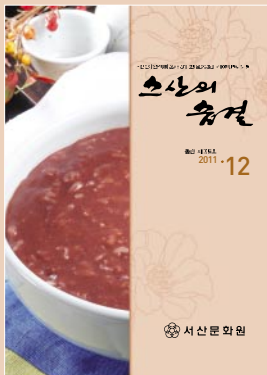


서산문화원



## 목 차

2011년 • 12월호



동지 팔죽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서 일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짓날에는 붉은 팔죽을 쑤어 조상께 올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의 건강과 액을 면하길 기원했다.

- 03 행복을 얻는 지혜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5 서산해역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강현 / 해양문화연구원장)
- 08 서산의 문화인물 - 윤곤강
- 10 계백-10분 9답 (김종성 / 역사학자)
- 13 매사냥
- 16 인터뷰 - 김상태 (유병인 / 서산문화원 이사)
- 18 안견창작스튜디오 오픈 (유병인 / 서산문화원 이사)
- 20 문화공간 - 헤일리 예술마을
- 23 이야기로 읽는 미술 감상 (전화평 / 미술이론 강사)
- 26 문화가족 한마당
- 27 윤곤강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 28 제19회 서산문화대상 시상 및 제11회 청소년문화상 시상
- 29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개최
- 30 그윽한 전통무용의 향기속으로.. (김필자 / 전통무용 수강생)
- 32 서산향토연구회 이영하, 향토사연구활성화 노문공모 최우수상 수상
- 33 시정소식

## 행복을 얻는 지혜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요즘 글로벌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정보가 한 순간에 세계로 통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풍요로운 인간 정신에서 오는 창조적인 인간상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질서가 조직의 확실한 비전으로 다가온다는 뜻일 것 같다.

그렇다면 창조적 인간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좋다고 자처하는 한국은 노벨과학상 하나도 못 받고 있다.

문제는 교육에 있다. 곤충의 더듬이에서 무전기를 발명하고

나뭇잎에서 전자를 발견해 내는 등의 선진국의 교육방식은 체험과 토론인데 우리는 암기식 주입 교육이다.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창조적 사고를 창출할 수 있는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다. 신지식인은 학업성적의 우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全人的) 인재로 키워야 된다는 뜻이다.

스스로 무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며 일신의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초개(草芥)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또한 내적 영혼 돌보기에 힘을 쏟게 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지를 뒤로 하고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그들은 문화를 매개로 지역과 소통하고 세대와 공감하며 많은 이들을 위해 헌신적 배려가 생활화 되면서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격조있게 가꿀 줄 알며 타인보다 세상을 보는 예지가 앞서고 있기에 문화인으로서 결국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에게 무한의 가치를 전해주며 그 가치를 알고 표현하며 즐기는 사람이 바로 범속을 뛰어넘어 깨어있는 사람이다. 지혜와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행복이라는 피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부자나 권력으로 살면서 행복을 얻는 사회는 끝났다고 본다. 그것들은 영혼이 없고 전인적 지혜와 인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 삶은 머릿속이 하얗게 말라져있어 미국의 과학실험 “스키너의 상자”라는

쥐살힘에서처럼 단순한 쾌락으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매말라 버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도 끝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난 태초부터 중세까지는 신(神)의 시대였다. 종교적인 삶으로 이어져 오던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산업사회로 이어져 왔고 이제는 물질이 능사가 아니라 정보가 최고가 되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다. 이제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문화, 이미지, 스토리, 지혜를 파는 사회가 도래했음이다. 부자나 권력으로 사는 것은 모두가 일시적 무지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격조 있는 문화인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후회나 두려움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말한 창조적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해본다. 읽어야 한다. 책을, 신문을, 잡지를, 닳치는대로 읽고 사고(思考)하면서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읽음으로서 개인의 행복 또는 사회와 국가의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TV, 인터넷, 트위터 등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읽는 힘이 곧 그들 정보를 판단하며 정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읽음으로서 상대와 사랑이 듬뿍 담긴 담론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렇게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 들게 되는 것이다. 조화로운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끝없는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숲을 가꾸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어떤 사안에 관하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고(思考)를 한다.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사람은 즉 많이 읽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사유(思惟)를 하게 된다. 언뜻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름을 알 수가 있게 되며 사유(思惟)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바로 사유가 필요한 시대. 얻어지는 모든 정보를 정제하여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고 되는 시대임을 절실히 느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은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 瑞山海域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 강 현

(제주대석좌교수 · 해양문화연구원장)

## 차례

- 사례2. 명천포
- 사례3. 덕지천포

### Ⅲ. 서산의 어법과 어로도구

- 1) 서산해역의 어법 및 어구의 특징
- 【환경과 어법의 상관관계】

#### ■ 사례2. 명천포

몽구리산(문길산, 180미터)과 테미산(성왕산, 252미터)의 줄기에 싸여있는 분지성 지형이다. 산자락 저지대에 4개 자연마을을 이루었으며,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명천천 양쪽에 산재한 집촌 성격이 강하다. 명천이란 말은 馬鳴·말우리 두 용어가 병용되고 있다. 자연마을은 새암골, 아홉모랭이, 느르실, 당굴, 왜굴, 승전굴 등이 있다. 명천천은 면내의 주요 하천인 성연천에 합류하여 옛날의 명천포구로 유입하면서 유역에 들판을 형성한다. 명천리에서 평리까지 연결된 도로도 이 하천을 따라 개설되어있다.

성연면을 흐르는 성연천은 근원이 여러 갈래이다. 성왕산 - 부흥산 - 부춘산으로 연결되는 산지의 북쪽 산록을 흘러내리는 물과 비룡산 - 연화산으로 연결되는 사지의 동쪽 산록을 흘러내리는 물이 북으로 흘러 성연면의 중심지인 평리를 지나 명천리 앞에서 명천을 합해서 명천포구에 유입된다. 과거에는 성연천과 명천천이 독자적으로 서산만에 유입되었으나 현재는 서산만 어구가 모두 간척되었다. 특히 대호방조제가 건설된 이후로는 더욱 그러하다. 명천천은 물의 근원이 음암면 문양리에서 나와 서북으로 흘러 성연면 명천천으로, 명천포에서 성연천과 합류한다. (군지1권 59쪽)

1982년 11월 20일 완공된 서산군 대산면 삼길포와 당진군 석문면을 연결하는 대호방조제 공사로



명천포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명천포구는 서울가는 길목이었으며 이 마을을 거쳐서 정미, 당진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루었다. 서산읍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량도 많았다. 그러나 성연면 소재지쪽의 대산선 국도가 포장되고 서울 가는 노선도 서산-음암-운산-당진을 연결하는 직선도로가 확장·포장되면서 이 지역 교통량은 급락했고 교통요지로서의 명천리 윗삼거리 기능도 마비되었다. 명천포구는 1973년에 사라졌다. 이 포구는 본디 조선시대에 해창을 두고 서산 일대 각 고을의 조세를 서울로 실어나르던 곳이었다.

윗삼거리는 서산, 당진방향, 아랫삼거리 방향으로 분기되는 곳으로 마명리에 있다. 아랫삼거리 방향으로 약 400미터 거리에 다시 삼거리가 형성되는바, 그 한 길은 말우리고개를 넘어 이웃 예덕리에 이르는 노선이다. 그리고 아랫삼거리는 윗삼거리와 연결되어 해성-예성리를 경유, 당진군 대호지면으로 이르며 명천포구를 끼고 있으며 그 반대방향으로는 면소재지를 거쳐 대산선과 만나 서산읍으로 연결된다.

명천리는 서산장을 본다. 예전에 명천에서 여객선이 다녀 인천으로 많이 나아갔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도 인천에 많이 나가산다. 그러나 차가 많아지고 배가 없어지자 이제는 서울로 더 많이 가는 편이다.

### ■ 사례3.덕지천포

지금은 서산시가 되어버린 과거 서산읍 중심지의 동남방에 위치한다. 예전에는 오산면(吾山面) 소속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서령면(서산읍)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5개 자연마을이 4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마을은 뒷굴(後谷), 앞굴(前谷), 죽터, 참샘(참삼, 眞泉), 동쪽 등 5개로 나뉜다. 구룡성 산자락에 의지하여 발달한 소규모 집촌이다. 전주이씨, 전주김씨, 곡부공씨가 처음으로 들어왔으며 약 6~7대를 살았다고 전해진다. 총 가구수는 103가구이며 인구는 86년말 기준으로 596명이다.

덕지내라고도 부르며 천수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덕지천에서 온 말이다. 덕지천은 대교천과 해미천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덕지천리에서는 오폐강이라고도 부른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가 건설되기 전에는 마을 앞까지 20톤 가량의 배가 들어오기도 했다. 천수만간척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해변마을의 광활한 간척지 배면에 위치한 내륙마을로 변하게 되었다.

덕지천은 일명 도당천이라고도 한다. 물의 근원이 음암면 면사무소에 있는 도당리 남쪽의 구룡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부장리·신장리를 거쳐 덕지천동에서 해미천·대교천이 합수되어 내려오는 물과 합쳐 천수만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산읍과 해미면 사이의 넓은 해안평야지대를 따라 개설된 도로가 마을 중심부를 동남향으로 지나고 있다. 덕지천에는 해방 이전에는 매키나 당줄, 갯끈을 지고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던 붓집장수들이 있었으며, 난장도 있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자연스레 난장도 없어지고 붓집장수도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20분이면 갈수 있는 서산장을 이용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시판한다.

오포강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20톤 이상의 중선배가 들어와 현재의 앞굴 앞 도로연변에 큰장이 서기도 하였다. 오포강과 앞굴 사이에 있던 갯벌은 간척사업으로 논이 되었으며 그 넓이가 74정보에 이른다. 이곳에는 그 이전부터 논이 있어 유왕배미라 불리왔으며 해마다 정월에 용왕제를 지냈는데 해방 이후에 사라졌다. 오포강에 들어오던 배는 지금도 마을에 있는 배다리(舟橋)까지 들어왔다. 일제는 오포강으로 곡식을 실어 나르기도 하였는데 배는 사리때나 들어올 수 있었다. 오포강에 들어오던 배는 지금도 마을에 있는 배다리까지 들어왔다.

토지비유는 논면적이 읍내의 다른 마을에 비하여 상당히 넓다. 덕지천에는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중선과 안강망 어선이 들어와 지금의 앞굴 앞 도로연변에 큰장이 서기도 했다고 한다. 오포강과 앞굴 사이에 있던 벌판은 간척사업의 완공과 함께 모두 논으로 개조되었으며 넓이가 총 74정보에 이르는 드넓은 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전부터 논이 있어 유왕배미라 불리웠고 해마다 정월에 용왕제를 지냈었다고도 한다. 현재 호당 경지면적은 1.21정보로 매우 넓은 편이다. 수도작이 중심으로 낙동과 아끼바리를 주로 심는다. 생활권은 시장권을 중심으로 보면 읍내이며 기초생활권은 오남리다 (『서산민속지』 참조)<sup>76)</sup>

### Ⅲ. 서산의 어법과 어로도구

#### 1) 서산해역의 어법 및 어구의 특징

##### 【환경과 어법의 상관관계】

서해해역은 밀물·썰물의 격차가 심한 전형적인 조간대를 연출하고 있다. 갯벌이 잘 발달해있으며 도서지방은 모래밭도 발달해있다. 리아스식 해안은 만을 형성하여 연안어업에 유리하게끔 되어있다. 서산해역도 황해라는 자연적 지형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잡다단한 리아스식 해안이 펼쳐진 태안반도 해역은 대륙붕이 발달해있으며, 어업활동도 이 같은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조간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원래 황해 밑바닥은 모래밭이었는데 황하와 양자강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흙들이 쌓여서 바닥에 퇴적되어 황해를 형성하였다. 황해는 평균 수심이 44m이기는하나 60-80m의 비교적 깊은 쪽은 우리나라 쪽으로 편재되어 남북으로 길게 뻗치고 있는 상태다. 그 양측은 육지를 향해 서서히 알아지는 전형적인 대륙붕을 연출한다.

※ 지난 11월호 (337호) 7P 하단 세번째 줄 (서산장이 1.6일, 태안장이 2.7일)을 (서산장이 2.7일, 태안장이 1.6일)로 정정합니다.

76) 제보자: 이도환(남, 1985년 조사당시 60세, 농업)

# 나 윤 비 곤 강



故 윤곤강의 생전 모습

올해는 시인 윤곤강이 태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윤곤강은 1911년 서산을 동문리 777번지에서 윤병규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적원이고, 19세때 명원으로 개명하였다. 그의 아호인 곤강은 천자문속의 「金生麗水 玉出崑崗」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13세 때에는 온양의 예안 이씨와 용완과 결혼하였지만 당시에도 너무 빠른 조혼이라 동네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한다. 부인 이씨는 곤강의 시작활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4세까지 한학을 배웠고, 15세 되던 해 부친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여 보성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18세인 1928년에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혜화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5개월만에 그만두게 된다.

20세인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센슈대학에 들어가고, 1931년에 좌익성향의 잡지였던 『비판』에 그의 첫 작품 「옛 성터에서」를 발표한다.

23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카프에 가담하고 다음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다. 소설 『이순신』, 평론 『소살리알리즘』을 발표한다.

카프의 제2차 검거에 관련되어 피검되어 약 3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출감후 당진군 당진을 시곡리로 낙향한다. 1937년에 다시 상경하여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된다. 4권의 시집을



연달아 발간하고, 35세에 다시 당진으로 내려온다. 1948년 38세에 중앙대 교수로 임명되면서 이때부터 이전의 시와는 다른 전통적 정서의 『피리』, 『살어리』를 편낸다.

1950년 40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에 안장된다. 그는 첫 시집 『대지』로부터 마지막 시집 『살어리』에 이르기까지 십년 남짓한 동안 여섯 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이는 그가 쉬지 않고 시를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단히 변모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 인식을 그 속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가 다른 동시대의 시인들과 달리 독자성과 주체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윤곤강은 시인의 자질로서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과 역사를 바라보는 진실한 삶의 자세를 꼽았음은 물론, 그러한 삶의 자세가 문학적으로 걸러지고 단단한 의미망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인이다. 시정신을 일관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시대 의식이며, 부단히 작품 속에 그것을 녹여 내리고 애썼던 시인이었다.



서산시 문화회관 옆에 세워진 윤곤강 시비

## 나비

비바람 험상궂게 거쳐 간 추녀 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맛이다.

자랑스러운손 화려한 춤 재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MBC 드라마 <계백>  
왼쪽부터 의자왕(조재현 분),  
은고(송지호 분), 계백(이서진 분)

계백 장군(이서진 분)과 의자왕(조재현 분)의 이야기를 다룬 MBC 드라마 <계백>이 지난 10월 22일 막을 내렸다. 톱스타 이서진을 내세우고도 시청률 11.0%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신라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백제인의 입장에서 백제 최후의 순간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주요 스토리가 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점검해보면서, 백제 최후의 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보자. 이를 위한 질의응답을 '10문 10답'이라 아니하고 '10문 9답'이라 한 것은 마지막 질문의 해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이다.

## ●-1 계백은 어렸을 때 노예였나?

**A** 드라마 속에서 계백의 아버지인 무진(차인표 분)은 무왕(의자왕의 아버지)의 호위 무사였다. 그는 무왕을 견제하는 귀족세력과 싸웠고,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었다. 연좌제에 걸린 계백은 죄인이 되어 호송되다가 갑작스레 침공한 신라군에 붙들려 신라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전쟁터에서 왕자 의자를 만나 백제로 귀환했다는 것이 드라마 속 이야기다. <삼국사기> '계백 열전'에서는 계백이 달솔 벼슬을 했다고 했다. 달솔은 16관등 중에서 2단계로서 중앙부처 장관급이다. 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계백이 왕족인 부여씨라고 했다. 드라마와 달리 실제의 계백은 처음부터 왕족 출신의 엘리트였다.

## ●-2 의자왕은 호색한이었나?

**A** 드라마 속의 의자왕은 왕자 시절에 소문난 플레이보이였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부녀와 밀회를 즐길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의 의자왕은 어려서부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명성이 자자했다.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 및 <신당서>의 '동이열전'에서는 의자왕을 해동중자 즉, '동방의 중자'로 칭송했다. <논어> '태백' 편에 따르면, 증자는 효자의 모범이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효도는 인간 됨됨이를 판단하는 최대 기준이었다. 의자왕은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말년에 궁녀들과 술을 많이 마신 적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 '슬럼프'에 불과했다.

### Q-3 계백은 전쟁 영웅이었나?

**A** 드라마 속 계백은 무왕 때부터 전쟁 영웅이었다. 의자왕 즉위 이후에는 약 40개의 신라 성(城)을 연속으로 빼앗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산벌 전투가 계백의 처녀 출전이었다. 그 이전에는 전쟁을 지휘한 적이 없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편에 따르면 신라 성 40개를 한 달 만에 빼앗은 주역은 의자왕이었다. 왕이 직접 출전하여 그런 대기록을 세웠다.



황산벌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계백

### Q-4 의자왕은 왜 독재자가 되었나?

**A** 의자왕은 말년에 독재자가 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20년간의 재위기간 중에서 15년 동안 의자왕은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했고, 고구려 · 말갈 · 왜국과의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계속되는 성공이 의자왕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이것이 독재로 이어졌다.

### Q-5 의자왕은 계백을 시기했을까?

**A** 드라마 속의 의자왕은 계백을 무척이나 시기했다. 왕후인 은고(송지효 분)가 계백을 연모하는데다가 계백이 국민적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실제의 의자왕은 계백을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의자왕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군주였다. 계백이 시기했다면 모를까, 의자왕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다.

### Q-6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을 두려워했을까?

**A** 나당연합군이 양쪽에서 협공해 오자, 드라마 속의 의자왕은 불안에 떨었다. 『삼국사기』에 묘사된 의자왕의 표정은 정반대였다. 나당연합군이 침공해 오자, 백제 조정에서는 2가지 카드가 논의되었다. 하나는, 서부전선 최전방인 기벌포(금강 입구)에서 당나라군을 막고 동부전선 최전방인 탄현에서 신라군을 막는 한편, 나당연합군의 군량미가 떨어질 때까지 장기전을 펴다가 결정적 순간에 적들을 물리치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기벌포와 탄현을 그냥 내주고 적군을 안쪽 깊숙이 끌어들인 뒤 속전속결로 일망타진 하자는 것이었다. 의자왕은 후자를 선택했다. 백제군이 그만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결국 그 작전 때문에 멸망했지만 개전 직전만 해도 의자왕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 Q-7 계백은 왜 5천 군대만 갖고 출정했나?

**A** 드라마에서는 백제 군사가 부족해서 5천 명밖에 거느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백제 조정에서는 5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라군은 나당연합군 전체의 보급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비전투 병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투 경험 없는 화랑들도 다수 섞여 있었다. 황산벌에서 열린 5회전의 전투에서, 4회전까지 백제군이 5천 병력으로 5만의 신라군을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군 속에 정예병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다. 신라군이 5회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은 어린 화랑인 관창·반굴의 영웅적 죽음이 사기를 드높였기 때문이다. 뜻밖의 계기로 신라군이 죽기 살기로 덤벼든 것이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부여 백마강변의 낙화암

### Q-8 은고는 낙화암에서 뛰어내렸나?

**A** 드라마에서는 은고가 낙화암에 신발 두 짝을 벗어 놓고 뛰어내렸다고 했다. <일본서기> ‘제37대 사이메이 천황’ 편에 따르면, 은고는 남편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다.

### Q-9 삼천궁녀는 정말 있었나?

**A** 드라마에서는 은고 홀로 낙화암에서 투신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삼천궁녀는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백제보다 훨씬 더 큰 조선에서도 궁녀 숫자는 최고 684명이었다. 304만~38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백제 인구에서는 170명 이상의 궁녀가 나올 수 없다. 또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제왕에게는 많은 궁녀가 있다’는 뜻을 ‘제왕에게는 삼천궁녀가 있다’는 과장법으로 표현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삼천궁녀란 말이 관용적으로 사용됐지만, 실제로 어느 황제도 3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지 못했다. 한편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낙화암에서 떨어진 여인의 숫자는 10명 내외라고 고증했다.

### Q-10 백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나?

이번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서 ‘A’를 표기하지 않았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가 망한 뒤 왜국은 백제부흥운동을 벌이고 백제 유민들을 수용하며 그들에게 관직을 내주는 한편 사회체제를 크게 혁신했다. 그런 작업이 완료된 뒤인 671년에 왜국은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었다. 왜국 토착민과 백제 유민을 아우르는 새로운 나라, 일본이 세워진 것이다. 660년에 의자왕이 백기를 들었으니 백제가 죽었다고 볼 것 인지, 671년에 백제 유민들이 일본 건설에 동참했으니 백제는 죽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 글쓴이 소개

#### 김 중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 문화제청 헤리티지 채널 ‘TV속 역사읽기’ 연재 중

# 매사냥



매사냥이란 음력 10월 초부터 이듬해 해동(解凍)이 될 때까지 길들인 매를 날려 보내어 꿩이나 토끼 따위의 짐승을 잡는 사냥놀이이다. 옛날 기록에는 방응(放鷹)이라고 하였다. 길들인 매로 사냥을 하는 것은 활이나 총으로 짐승을 잡는 수렵 행위보다는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었으며 우리 선인들은 고대부터 매사냥이 이어져왔다.

〈삼국사기〉에 백제 아신왕은 성품이 호매하여 매사냥을 좋아했으며, 법왕 1년(599) 12월에는 살생을 금지하여 집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전부 놓아 주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유사〉 영취사에는 어떤 사람이 매를 놓아서 꿩을 쫓게 하였는데, 그 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가 매에 달아 놓은 방울 소리를 듣고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매사냥이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매의 사육과 사냥을 전담하는 응방(鷹坊)이라는 관청까지 설치했는데, 충렬왕은 매사냥에 열중하여 민간에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충목왕 때는 응방을 폐지하였다가 공민왕이 매를 사랑하여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응방이 있고 응방군까지 있어서 매사냥이 한층 성행하였음을 알려 준다. 조선시대의 태종은 매사냥을 자주 즐겼으며, 연산군 때는 매사냥 때문에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중종 때는 일부 폐지하였으나 민간에서 행하는 매사냥은 금지하지 않았다.

김창업(金昌業)은 매사냥의 호쾌한 기개를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 념은 보라매를 엇그제 갓 손 떼어/빠짓체 방울 달아 석양에 받고 나니/장부의 평생 득의는 이뿐인가 하노라.」

김창업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파묻혀 살면서 농사짓고 매사냥이나 즐기며 유유자적 학문에만 열중한 큰 학자였다. ‘빠짓체’란 ‘빠짓이’라고 해서 매의 꽁지 위에 표하기 위해 덧꽃아 맨 새의 깃을 말하는데, 이 깃에 맑은 소리가 나는 청동방울을 달아 놓아 매가 움직이는 대로 방울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꿩을 쫓아 날아간 매를 방울 소리로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사냥을 하는 매는 송골매라 하며, 새끼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라고 하고, 보라매를 해동청(海東靑)이라고도 부른다. 산에서 제풀로 자란 매를 산지니라고 하는데, 이 산지니는 길이 들지 않아서 먹이를 뜯어 먹고 배가 부르면 제멋대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냥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사냥매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잡아서 사람 손으로 길들인 매라야 한다. 이렇게 길들인 매를 보라매 외에 육지니 · 수지니 · 수진개 · 수진매라고도 한다. 보라매도 1년 이내 갓은 초지니 또는 갈지개라고 하고, 1년에서 2년까지는 재지니, 2년에서 3년까지는 삼지니라고 부르는데, 사냥하기에는 초지니가 날렵하고 용맹무쌍하여 가장 좋으며, 재지니 · 삼지니쯤 되면 동작이 느려서 별로 신통치 못하다.

매 중에서도 백송고리는 성질이 굳세고 날쌔어 해동청 가운데 아주 귀하게 아끼는 종류이며, 도롱태 · 황조롱이 · 새호리기 같은 것은 육지니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기르지 않는다. 새매의 수컷인 난추니는 것이 예리하여 새를 후려쳐서 잡고, 암컷인 익더귀는 독수리를 닮아 능히 호랑이를 잡는다고 한다.

매사냥은 보라매를 중심으로 행한다. 매의 발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보라매를 받아드는 매꾼은 팔뚝에 두툼한 토시를 끼고, 그 토시 위에 매를 받아들고 사방이 잘 내다보이는 산마루에 오른다. 물이꾼과 털이꾼들이 ‘우우’ 소리를 내면서 산줄기 나무숲을 훑어서 꿩을 통긴다. 어디서 꿩이 날아오르면 산마루에서 목을 지키고 있던 매꾼은 보라매가 날아가는 꿩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하고 나서 매를 떠나 보낸다.

‘매나간다’고 매꾼이 소리 지르면 물이꾼들은 방울 소리를 듣고 매가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간다. 험준한 산줄기를 타고 넘고 골짜기를 허겁지겁 건너 질러 쫓아가다가 방향을 모르게 되면 잠시 귀기울여 보라매의 방울 소리를 찾아 듣는다. 이때는 아무리 숨이 가빠도 쉴 여유가 없다. 일각이라도 속히 매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가 꿩을 잡았을 때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꿩 등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표독한 주둥이로 꿩의





머리를 쪼거나 눈을 뽑아내는데, 그럴 적마다 꿩이 고통에 못 이겨 꿈틀거리면 매의 뼈깃에 달린 방울이 가볍게 울리곤 한다. 사냥꾼이 일찌감치 도착하면 매의 발 밑에 깔려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 있는 꿩을 그대로 빼앗아 낼 수 있지만, 웬만큼 늦어지면 벌써 꿩은 눈이 빠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 있게 마련이다.



기산풍속도첩 매사냥

더구나 아주 늦으면 아무리 길들인 육지나라도 잡은 꿩을 포식하고 제멋대로 훨훨 날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매가 꿩을 먹기 전에 찾아내야만 한다. 꿩을 덮친 매를 발견하면 매꾼은 허리춤에 매단 주머니 속에서 닭의 넓적다리를 꺼내어 매에게 먹이면서 잡은 꿩을 가로채 낸다. 그리고 다시 보라매를 토시 위에 받아 올려 한쪽 다리목에 잡아맨 짧은 끈을 감아쥐고는 닭고기를 더 먹이지 않는다. 매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하거나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항상 허기지게 먹이를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다.

수렵 행위는 고대인의 생활활동이었다. 원시인은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고, 부족국가시대에는 무예의 수련으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수렵을 행하였다. 매사냥은 자연에서 호매한 지기를 기르는 활달한 행락으로서 우리 선인들이 즐겨 해왔고, 일정한 제약 없이 산야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스포츠로서도 심신을 단련하는 데 손색이 없는 활동이다.

일제강점기까지도 매우 성행했던 매사냥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나 매사냥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기능보유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의 매사냥은 1998년 1월 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2월 18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2010년 11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 매사냥의 독창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 겨울 민속놀이인 매사냥! 다양한 시연행사와 동호회를 찾아가 배워보길 권해본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靑丘永言」, 「謹齋集」(安軸), 「靑莊館全書」(李德懋),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北關記事」(洪儀永), 「才物譜」(李成之), 「放鷹」(趙琬默)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단의 맥을 전승하는 것이 꿈”

국악인 김상태 선생



김상태 국악협회 서산시부지회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산문화원에서 수여하는 서산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우리소리를 전하는데 매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풍물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풍물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신명을 다바쳐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김 선생의 수상 소감 일성이다.

김상태 선생(59)은 서산 국악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다. 악기와 소리는 물론 그의 풍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농악과 풍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소리이고 한국인의 피 속에 구성된 멜로디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명나는 놀이 마당에서 들리는 우리가락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고 흥겨운 춤사위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김상태 선생은 타고난 재능도 있었지만 우리 것이 좋아 부단히 노력하여 터득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김선생은 어려서부터 국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었다. 동네에 풍물이 있으면 맨 앞에서

구경하며 리듬을 몸으로 익혔고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풍물 선생님을 찾아가 배웠다. 또한 주변에서 국악과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박첨지 놀이로 유명한 김동익 선생, 온석동의 장철순 선생 등이 같이 장단을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소리, 악기, 풍물 등 국악의 모든 분야에서 타고난 역량을 발휘하는 국악인이다.

2004년 6월과 2005년 8월에는 한국국악협회 충남도지회 주관의 국악강사 풀제 강사연수를 마쳤고 2005년 한국국악협회 서산시지부 풍물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부터 본격적인 국악풍물강사와 농사를 겸하며 지역사회에 전통풍물을 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서산문화원, 서산농촌지도소 주부풍물반, 서산시여성풍물패, 반양초등학교 풍물반, 서동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성연농협 주부풍물반 등을 지도하면서 풍물강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1992년 전국민요경창대회 대상, 93년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 인기상, 96년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요령경연 장원, 98년 매현문화제 내포농악경연대회 상쇠 개인상, 2011년 제6회 황산벌 전국농악대회 상쇠 개인상 등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 한국국악협회 충남도지회장 표창, 2003년 충남도지사 표창, 2009년 서산예술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서산 국악사에 남긴 업적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제가 하는 농악은 정리된 악보가 없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물을 몸으로 익혀 만들어낸 것이고 그 몸짓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놀이입니다. 순수한 옛날 선조들이 쓰던 장단을 배워 구성지고 가슴의 울림이 있는 풍물을 계속 전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태 선생이 하는 풍물은 요즘 새롭게 재구성해 탄생한 사물놀이(얹은방)처럼 정리된 악보가 없다. 그래서 배우기 힘들고, 때론 이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 풍물대회에 나가 인맥으로 심사하여 불이익을 받고 어렵게 연습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생각했던 대로 성적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배우는 사람들도 실망이 많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것이 좋아 순수한 옛날 선조들이 쓰던 장단을 고집하며 후학을 지도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그의 국악 사랑이 서산문화대상이라는 영광으로 돌아간 것 같다.

〈글: 유병인〉



# 안전선생의 예술혼을 되살리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다

## 안전창작스튜디오

농촌의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학교가 새단장을 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부성초등학교 중왕분교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안전창작스튜디오로 거듭났다. 지난 11월 5일 성대한 오픈기념 작품전시회를 겸하여 문을 열었다.

안전창작스튜디오는 서산시가 2009년 3월 문을 닫은 중왕분교를 매입해 새단장을 마쳤고 대지 6,863㎡, 건물면적 518㎡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 작가들의 창작분위기 조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안전창작스튜디오에 새로 등지를 튼 사람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포현 황석봉(61)씨다. 황씨는 서산 성연면 출신으로 최연소 국전 입상과 미술대전 특선 3회, 국내외 개인전 29회 등의 경력을 자랑하는 서화작가다.

황씨는 서산시장과 경기 의왕시장의 직인을 만들었고 ‘백세주’와 ‘장쾌삼’ 등의 로고 글씨를 디자인 했다.

안전창작스튜디오는 황석봉씨가 큐레이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오픈식이 열린 5일부터는 서울, 대전, 서산의 유명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서산시는 앞으로 이곳을 예술창작 공간 겸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민의 배움터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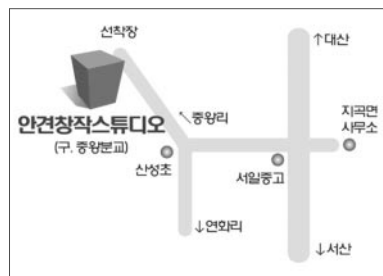
이완섭 서산시장은 안전창작스튜디오를 “우리지역 출신으로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전 선생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동자 안견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가로 신라의 솔거, 고려의 이념과 더불어 한국 회화사의 3대 성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안견창작스튜디오에서는 황석봉 선생의 창작활동과 내년 3월부터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예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예술 교육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전시와 기획 전시 작가들간의 교류와 주2회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마련하여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란다.

〈글: 유병인〉



# 헤이리 예술마을

## ◆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의 꿈

헤이리는 문화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개념의 특수한 공동체 마을이다. 그래서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들어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으로 볼 때 헤이리는 문화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도시적 형태로 계획되었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서울의 서부지역인 임진강과 개성, 서울 등을 잇는 생태문화벨트의 잠재성에 동참하고, 남북 문화교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헤이리는 2009년 국내에서는 세 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헤이리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이다. 원래 이곳은 서화촌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술인들이 모여 특화된 마을을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뜻을 같이할 회원을 모집,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1998년 창립총회, 2001년 토목공사 시작, 2003년 개별건축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여정을 거쳤다. 현재 15만평에 집과 작업실, 각종 문화예술 공간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헤이리 회원은 작가·미술가·건축가·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380명에 이른다.

헤이리라는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에 전해져오는 전통 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 헤이리가 제 모습을 다 갖추면 그야말로 문화예술계 요람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정치우표박물관, 근대사박물관 등 20여개의 박물관, 인물미술관 등 10여개의 미술관, 금산갤러리를 비롯 공방 100여개, 작가 작업실 300여개, 서점 30여개, 음악홀, 연극관 등 향후 2년 안에 예술마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호흡하는 생태마을

헤이리는 그 조성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특색과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개발일변도의 도시 계획을 부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호흡하는 생태마을을 지향한다. 이는 속도와 편리를 위해 직선 위주로 설계한 기존 도시 체계와는 다르다. 마을에는 직선도로가 없다. 곡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과 냇물과 늪을 그대로 되살려낸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헤이리 디자인코미니 및 헤이리 초대석 등을 통해 모색해 왔고 연세대학교 도시단지디자인 개발연구실 김홍규 교수팀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고스란히 완성되었다. 뒤이어 한국종합예술학교 김준성·김종규 교수는 헤이리의 건축 코디네이터로 참가해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건축·조경·환경디자인·사용 재료 등의 도시 설계코드를 작성했다.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을 살펴보면 마을 내 건물 볼륨과 높이, 간판 등의 제한이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 울타리를 없애고, 건물엔 페인트칠을 금지해 최대한 인공미를 자제시켰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원 광장 등 공유면적도 45%나 정해 놓았다. 또한 마을내 주민들은 자신의 건물 3분의 1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거단지가 중심이 되면 유동성이 심한 우리 사회의 특성상 마을의 고유한 성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물들도 모두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도 인상적인데, 국내 42명(팀), 외국 15명(팀)의 참여건축가그룹이 참여해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외 건축학도들의 견학 명소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향후의 헤이리의 과제는 방문객들과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새로운 문화예술의 기운을 복돋아주는가에 달렸다.

헤이리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마을이라는 성격에 맞게 문화와 예술 관련 종사자이거나, 문화 비즈니스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회원들의 대표 격인 이사회는 매달 회의를 열고 가입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토의와 심사를 진행한다. 헤이리가 이토록 회원선정에 까다로운 이유는 문화예술마을이라는 순수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마을 구성원들의 삶이 영위되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의 생산과 전시, 판매와 거주 등을 헤이리 안에서 이루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길 바라는 것이다.





## ◆ 다양한 실험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헤이리는 2003년 가을축제를 시작으로 매해 굵직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헤이리 작가전을 통해 입주한 작가 스튜디오를 공개해왔다. 또 헤이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아트숍과 카페 등에는 획일적이고 반환경적 요소를 지닌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입점을 자제케 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헤이리의 정체성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물론 회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경영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일반 대중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다.

## ◆ 문화예술로 대중과 소통하는 헤이리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의 창작, 전시, 공연, 축제, 교육, 담론, 판매, 국제교류, 창작주거공간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미술전시를 위한 국내·외 갤러리 연합전,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가을 축제 '파주 헤이리 판페스티벌', 봄 축제, '헤이리 예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는 일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가 되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다.

명칭 : 헤이리 예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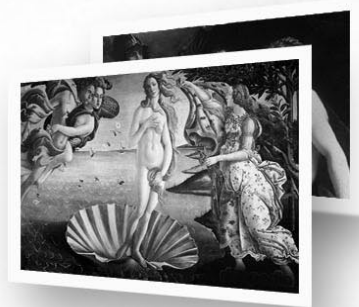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번지

전화번호 : 031)946-8551

홈페이지 : <http://www.heyri.net/>



# 이야기로 읽는 미술 감상



‘그림은 좋아하지만 볼 줄은 모른다.’ 혹은 ‘보고 느낄 수는 있으나 뜻은 모른다.’ 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 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학창시절 우리가 배운 미술수업은 실기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작품을 감상하는데 서툴게 되고, 졸업을 한 뒤에 사회인이 되어서는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술을 전공하거나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않는 한 일반인들에게 있어 미술작업 활동의 기회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작업 활동보다 감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충분하지 못한 감상교육으로 오는 자신감 결여로 미술을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근래 평생교육이나 미술활동체험 등 여러 기관에서 미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덕분에 일반인들의 관심과 교양수준은 불과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며 미술 감상 또한 더 이상 어려운 분야로 치부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관심 속에 친근한 미술로써 감상의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미술이론 강사  
전 화 평

그런 해소를 위해 필자는 쉽게 미술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바 있으며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미술 감상은 '이야기'처럼 편하고 재미있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한때 스토리텔링의 붐이 크게 불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단순 유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광고나 관광지소개 전시장 테마등 에서 이야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사용하고, 흥미 유발과 참여를 권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도 이야기의 유력은 가히 적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미술 감상을 할 때 그림을 본다는 표현보다 그림을 읽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얼마만큼 그림속의 이야기를 읽어내느냐가 감상의 큰 중점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다. 하물며 풍경화나 정물화에서도 이야기는 내제되어 있다. 작가가 숨겨놓은 이야기를 감상자는 찾아내고 작가와 감상자가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도출은 감상초보자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딱딱한 이론보다 그리고 작가의 내제된 뜻을 해석하기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미술을 접근하고 한걸음 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동화책에 흥미를 갖듯이 미술입문의 초보인 사람들에게 미술작품을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로 다가간다면 작품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한 예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프랑수아 부셰의 '비너스의 화장'의 작품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비너스와 함께 그려진 장미꽃이다. 이는 비너스와 인간인 아도니스의 사랑이야기가 배경이 된 신화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티치아노 베첼리오 <우르비노의 비너스>

비롯된 것이다. 아도니스를 사랑했던 비너스는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너스가 아도니스 곁으로 달려가는 중 하얀 장미의 가시를 밟게 되고 그 장미는 핏물로 빨강게 물들어 최초의 빨간 장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장미꽃은 비너스의 어트리뷰트(Attribute)가 되었고 다른 작품 속에도 장미와 함께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비너스로

의심해볼 수 있다. 비너스를 알게 하는 장치로는 장미 말고도 비둘기, 백조, 조개껍질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신화가 배경이 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을 더욱 깊이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이해와 작품탄생의 배경 및 미술이론의 고찰 등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비너스의 이야기를 통한 감상은 작품에서 비너스를 찾는 방법을 알았다는데 족하다. 적어도 비슷한 그림을 볼 때 어트리뷰트를 찾아내기 위해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풍속화에서도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다. 김홍도의 '서당' 작품에서 훈장님 앞에 울고 있는 녀석과 주변의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벼루와 먹이 없는 것을 보니 적어도 쓰기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며 각자 책을 펴놓고 있는 모습이 읽기 혹은 암기시간이 아니었을지 추측하게 만든다. 훈장님의 염려 어린 표정과 친구들의 익살스러운 얼굴 표정은 가운데 아이가 울고 있는 있으나 분위기가 살벌했거나 심각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훈장님 옆에 회초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 울고있는 것이 맞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맞았는지 엄살만 부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의 몫이다.

작품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작품에 애정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첫 발걸음으로 올바른 네답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쉽게 접근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감상기회를 많이 누리고 더 이상 미술 감상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랑수아 부세 <비너스의 화상>



김홍도 <서당>

## 문화가족 한마당

지난 11월 11일(금) 10시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에서 「문화가족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서산문화원 회원과 문화가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장기를 선보이는 자리로 회원간 단합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식전행사로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고있는 임봉순(중도일보 기자)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후 문화원 회원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공연이 펼쳐져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지역문화단체, 전문공연단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무대가 꾸며졌다.

아직 아마추어이지만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있는 플룻, 전통무용 수강생들과 지역에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한울색소폰앙상블, 땅울림, 가수 조인숙씨가 문화가족 한마당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패예술단의 초청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타악 소리로 흥겨움을 더한 뒤 행사의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를 통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흥겨운 회원 단합무대를 통해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문화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다. 서산문화원장은 회원과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메카로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 윤곤강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현대문학의 선구시인 윤곤강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시혼·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11월 26일(토) 오후 2시 서산문화원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김환성 서산시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윤곤강 선생의 고등학교 제자인 시인 박희진씨가 <윤곤강 선생 편모>라는 주제로 옛 스승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의 삶과 시 세계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윤곤강의 제2시집 「만가(輓歌)」 옛 표지 그대로 재판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초청강연 후에는 서산출신 출향작가(이생진, 유주홍, 조재훈, 권순악, 한수, 김문중, 박무웅 등)들의 시낭송이 마련되었으며, 가수 현승엽씨가 윤곤강의 시 「나비」를 작곡해 노래로 나비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곤강 시인의 현장을 위해 노력하신 윤찬구 전 의장과, 박만진 시인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관내 문학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시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윤곤강 시인의 문학정신이 계승 발전되어, 훌륭한 젊은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제19회 서산문화대상 시상 및 제11회 청소년문화상 시상



지난 11월 30일(수) 10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서산문화대상 및 청소년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서산문화대상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시상하는 상으로서 1993년부터 2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올해 19회를 맞이하였다.

이에 11월 23일 서산문화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악 분야의 김상태(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김상태씨는 2005년 한국국악협회 서산시지부 풍물분과 위원장 임명, 2008년 한국농악보존회 서산시지회 부회장에 현 재임 중이다. 지역 향토문화에 애착을 가지고 민속문화 발전 및 전수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구·신세대의 민속 전달을 위하여 활동한 업적이 우수하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농악 전수를 위하여 서산시내·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또한 청소년문화상은 서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3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문화상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올해 11회째인 청소년문화상은 초등부 최정연(음암초 6학년), 중등부 이다운(부춘중 3학년), 고등부 변지현(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우리 전통소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대내·외적으로 적극노력하며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김상태씨와 다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효행, 예행, 선행을 베풀어 수상을 하게 된 3명의 학생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지역 문화발전과 미래는 더욱더 진보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10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2011년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영수 주민지원국장과 서산시의회 김환성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수료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는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었으며 34개반 700여명의 수강생이 수강하였다.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하는 서산문화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수료식을 시작하였으며 지역문화학교 한국화 강사 조행섭, POP예쁜글씨 김영실 강사가 공로패를 시상 받았다.

이어 수채화의 33개 과목 수강생들의 수료증 수여와 개근상 시상이 있었으며 발표회에서는 중국어 교실의 노바디 공연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전통무용, 플룻, 요가, 클라리넷, 모듬북 수강생들의 무대가 펼쳐져 흥겨운 춤과 아름다운 음악, 열정적인 배움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발표회장 옆에 마련한 전시실에서는 수채화, POP예쁜글씨, 한국화, 도예, 클레이공예 등의 수강생 작품이 전시되어 그 동안의 수업 내용과 향상된 작품 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 작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전시된다.

2012년 상반기 지역문화학교는 2월 중 모집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 그윽한 전통무용의 향기속으로..



전통무용 수강생  
김 필 자

무용에 관심이 있었지만 뒤늦게 서산문화원 전통무용반에 입문하게 된 지 수개월이 되었다. 중년의 나이(지천명)가 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었다. 옛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애절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곤 한다.

서양문화에 밀려 우리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국의 한 여인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고전무용을 해보자 생각해왔고 아리랑을 배우고 싶었다. 우리 고유의 향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서산문화원 전통무용 수업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나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고 있다.

영혼의 내적인 평화, 아름다운 미소는 만족한 삶을 말해준다고 한다. 은은한 향기를 자아내는 우리 가락과 춤사위는 접해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고귀한 몸짓과 영혼이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나를 머물게 한다.

하루해는 너무 짧다. 삶의 기준과 목표를 삼아 서산지역문화에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의 발전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 우리 가락에 맞추어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만 한동작, 한동작 재미가 있다. 무용시간 두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올해도 벌써 겨울의 문턱에 종강을 할 시간이 왔다. 바지를 입고 생활하다가도 긴 치마입고, 한 잔의 차를 먹다가도 아리랑 가락이 나오면 음악 앞으로 뛰어나가게 된다. 일상에서의 해방감, 여유와 희열을 맛보게 된다.

먼저 수요일 전통무용 어머님들! 수년을 함께 무용을 하시면서 손수 지으신 농사로 과일, 야채, 곡식들을 가져와 간식을 나누고 계신다. 매시간 넉넉하고 훈훈한 정들을 쌓아가고 계신 것이다.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 오랜 경력과 시간만큼 후배들의 덕목이 되어주고 계시다.

목요일 전통무용 동료들! 한주일이 기다려진다. 함께 배우고,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전통무용의 정서를 나누고 있다. 서로 격려해주고 나아가면서 도살풀이도 배우고 있다.

초급반도 진땀 흘리면서 잘해주고 있다. 열심히 한 동작, 한 동작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 열정과 땀이 변함없이 계속되길 응원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으로서 열정을 다해 배우고 싶다. 중년 여성의 절개와 품위로 서산 지역에 문화를 심어가고 싶다. 더불어 사회에 자신감도 생겼다. 생명의 존엄성, 존귀함, 이웃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생기게 됐다. 함께하는 존중 먼저 배우신 선배님, 이제 막 배우는 초급반,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가을 소소히 부는 바람과 국화꽃 향기를 머금던 고북면 국화축제 한마당에서 발표한 김묘규 선생님의 입춤과 우리들의 한량무, 부채춤은 국화향기만큼이나 매혹적이고 서정적인 가을 색을 느끼게 해주었다. 얼마나 흥분되었던지... 우리 고유의 문화인 전통무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우리들은 꿈을 꾸어가고 있다.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용기 있게 깊이 있고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고유의 춤을 공부해 나갈 것이다.

옛것에 대한 숭고한 마음으로 비록 우리들의 춤사위가 어설피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모두 진지하게 배움에 임하고 있다. 각자의 기질과 나뭇대로의 기량대로 삶에 길목에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이다. 삶은 선택하고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고전무용은 실패가 없다. 성공도 없다. 그저 가는 것이다. 김묘규 선생님처럼 그 길을 갈 뿐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전통무용반은 추운 겨울방학에도 계속된다. 김묘규 선생님의 안무가 있을 때까지 서산문화원 지하 연습실은 열려있다. 멋과 흥과 숭고한 우리고유의 숨결 나는 사랑하고 사랑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심 없는 열정으로 오늘도 깊은 호흡으로 한 발짝 내딛는다.



# 서산향토연구회 이영하, 향토사연구활성화 논문공모 최우수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이준호)에서 주관하는 「2011충청남도 향토사연구활성화 논문공모」에서 이영하(서산향토문화연구회)씨가 영애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2월 2일 서산문화원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에서는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향토사료를 발굴하여 새롭게 조명함은 물론, 향토사가의 연구 의욕을 촉진 시키기 위해 향토사연구활성화 논문공모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영하씨는 서산문화원 이사이자 서산향토연구회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향토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연구를 해왔으며, 이번 공모전에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제출하여 최우수상이란 성과를 얻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논문은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의 향촌일사(鄉村逸事) 발견(發見)」으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발자취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꼼꼼히 현지를 찾아 다니며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해 산수에 홀리고 시문에 취한 무위자연의 도가에 경지에 있는 선비로 연구 결론을 내린 연구자의 식견과 능력이 높이 평가됐다.

약천은 중장년기 청주목사때 생사당(生祠堂)을 세울 만큼 선정을 베풀었고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으로 청남(허목), 탁남(허적), 노론(송시열), 소론(윤증)등 숙종조(肅宗朝) 4당의 환국정치(換局政治)의 혼란 속에 오투기(부도옹不倒翁)처럼 승승장구하여 우·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제수 받아 치적으로는 안용복의 공과 함께 일본사신에게 울릉도(독도 포함) 왕래를 금한 사례와 세종때 설치한 폐 4군 복설이며 이러한 연구는 약천 연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고 봤다.

이영하씨는 앞으로도 향토문화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시 | 정 | 소 | 식

## 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 01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입니다.

### 02 기탁할 수 있는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04 기탁방법

계좌이체 또는 직접방문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에 입금 후 전화로 기탁사실 통지 또는 기탁서 fax 송부  
 ※ 신한은행 100-025-812523(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다른 기탁 방법]

- 온라인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
- 스마트폰 : 신한카드 앱 설치 후 신한카드 포인트로 기탁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 BC, 국민, 외환, 신한, 롯데, 제주·광주은행 비자카드

### 05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06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665-4400)

##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김상태 (서산시 해미면) 2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이남식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이제운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기자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 • 안종미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조문순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임선재 (서산시 석림동) 3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권광주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강성실 (서산시 잠흥동) 20,000원 |
| • 서인석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 이정예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김필자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 강원식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청연면) 5,000원  | • 김인숙 (서산시 대산읍) 2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경창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배연숙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이석구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유희경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최선용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김진오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송명옥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허창순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20,000원    | • 이영하 (서산시 읍내동) 200,000원 |
| • 김종선 (서산시 읍내동) 40,000원   | • 김상태 (서산시 해미면) 200,000원 |
| • 정순희 (미국 시카고) 50,000원    | • 모 경 회 200,000원         |
| • 이소연 (미국 샌프란시스코) 30,000원 | • 서산박첨지놀이 보존회 30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



# 작곡가 손창수와 함께하는 노래 교실

- ✓ 내가 남보다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하면 박자나 음정이 틀려집니까?
- ✓ 발성, 호흡이 부족하여 음정이 잘 안 올라갑니까?
- ✓ 자신이 음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 노래하면서 감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 제대로 한 번 배워보세요..^^

악보를 보는 요령, 발성 및 호흡법, 감정을 몰입하는 방법 등 배우고 나시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서산문화원 2층  
문의전화 : (041) 662-7009 (손창수)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겨진** | 비매품(통권 제338호)

발행일 2011년 12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